

불법야적장 된 캠핑장...보성군은 수수방관

보성강 용문리 수변공원 조성하다 군수 바뀐 이후 부실 관리 화장실 잠기고 수도꼭지 물 안나와...삭막함에 관광객 발길 뜰 한전 지중화공사 한다면 나무 뽑고 자재 가득 쌓여 '홍물 전락'

전남을 대표하는 물놀이 명소 중 한 곳인 보성강 인근에 조성된 캠핑촌 겸 수변공원이 관리부실로 수변방벽 붕괴되면서 홍물로 전락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한전)는 해당 부지에 전신주 지중화 공사를 한다면 멸종한 나무를 뽑아내고, 무단으로 자재까지 쌓아놓는 등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보성군은 이미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 사업 추진에 난항이 있다는 답변이지만, 실상은 전임 군수의 구속 이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성군이 운영하는 문화관광포털에서도 캠핑장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고 김철우 현 보성군수의 공약에도 캠핑장 조성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캠핑장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던 한전은 지난해 군청 허가를 받지 않고 자재를 쌓아놓기 시작했다.

보성강의 맑은 물에 반해 캠핑장을 찾아오던 관광객들도 야적장으로 변한 이후 발길을 뜰 못했다.

인근 주민들은 군청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군청 각 부서에선 타부서 소관이라며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보성군은 그동안 투입된 예산 총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날 캠핑촌 조성사업을 추진한 문화관광과에 문의한 결과, '진입로 공사만

했을 뿐 부지관리는 도시개발과'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도시개발과는 '캠핑촌 조성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한전의 무단 적지 사실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주민 A(70)씨는 "해당 부지는 물놀이 명소인 보성강과 인접해 제대로 개발만 된다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몰려드는 명소가 될 수 있는데 방치돼 안타깝다"면서 "특히 남해고속도로에서 보성읍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한 이곳에 건설자재들이 가득 쌓여있어 지역의 첫 인상도 엉망이 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보성=김용희·정병호 기자 kimyh@



12일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정자교 인근 조성된 캠핑촌 부지에 한국전력공사가 진행하는 전신주 지중화 사업 건설 자재들이 무단으로 적치돼 있다.

광주 버스 도착 알림 민간 앱 악성코드 감염 시민 10만여명 다운로드...市 "책임 없다" 조치 안해 논란

광주 시내버스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한 민간 안드로이드 앱이 악성코드(맬웨어)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광주시민 10만여 명이 해당 앱을 내려 받았지만, 광주시는 '행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2일 글로벌 보안 업체 맥아피(McAfee)의 모바일 연구팀이 지난 4일 블로그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광주버스'와 '전주버스', '대구버스', '창원버스' 등 같은 제작자가 만든 4개 안드로이드 앱의 특정 버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전주 버스 50만명, 대구 5만명, 창원 1000명 이상이 버스도착 알림 앱을 다운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에서 제공하는 버스운행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광주버스' 앱의 경우 지난해 8월 9일 3.3.7 버전으로, 이 버전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데이트하면 그와 동시에 기기에 든 자료가 다른 서버로 빠져나가는 플러그인이 추가됐다.

주요 군사·안보분야 키워드를 인식하면 자료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해당 키워

드는 문재인, 대통령, 북한, 국방, 국정원, 탈북, 기무사 등 42개다.

만약 광주버스앱 중 3.3.7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즉시 삭제한 뒤 새로운 버전을 다운받아야 한다. 광주버스앱은 지난달 11일 이후부터 악성코드가 없는 새로운 버전(1.2.0)이 등록돼 있다.

광주버스 앱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리뷰란에 "이전 앱과 계정이 해킹당했지만 현재 앱은 안전하다"며 "발견 즉시 대응해 확산을 방지했다. 논란이 돼 죄송하다"고 사과의 글을 올렸다.

시민박지훈(27·동구서석동)씨는 "광주 시내버스 정보를 알려주는 앱인 만큼 광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사용하는 앱에 문제가 있다면, 시에서 최소한 삭제안내 등 시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는 모바일 앱에서만 시민들에게 버스노선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악성코드가 깔린 민간 앱을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환영 기자 young@kwangju.co.kr

사망사고 조선소 작업중지 명령 손혜원, SBS 기자 9명 고소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안전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여수시 돌산읍 소재 여수해양조선소(광주일보 2019년 2월 12일자 6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수지청은 지난 11일 오후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3명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선소에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했다.

한편 11일 오후 3시 57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의 한 조선소에서 자동차 등이 드나드는 선박 구조물인 랩프가 풀리면서 근로자들을 덮쳐 선박 도장 작업을 하던 A(50)씨가 숨지고 B(58)씨가 다쳤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손 의원은 또 SBS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반론 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고소장에서 "SBS(탐사보도팀인) '끝까지 판다툼'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접근을 통해 차명모(부동산을) 구매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여자 행세하며 채팅男 6명에게 5000여만원 가로채

경찰, 20대 남성 구속

"여자친구를 찾으세요?" 한모(26·광주시 동구)씨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한 여성으로부터 데이팅신청을 받았다.

여대생이라고 밝힌 채팅녀는 첫 인사 후 저돌적으로 "보고싶다. 사귀고 싶다"며 한씨의 마음을 흔들었다. 한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채팅녀가 한씨의 채

팅 아이디를 A4용지에 직접 써서 들고 전신사진을 찍는 이른바 '인증샷'까지 보내오자 믿음이 커졌다. 결국 수일 만에 온라인상 '연인'으로 발전했다.

에인이 된 채팅녀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한씨에게 "배 고프다"며 2~3만원을 요구하더니, "핸드폰 요금을 내지 못해 연락이 끊길 것 같다"며 10만원을, "어머니가 아프다"며 병원비로 수십만원을 은행계좌로 받아냈다. 한씨가 6개월여간 100차례

에 걸쳐 3000여 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한씨는 온라인 연인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다. 요구 금액이 점차 커지는 데 의심이 생겨 고민 끝에 신고를 결심했다.

경찰은 금융거래 내역이 자주 발생한 인근 속박업소를 탐문하던 중 한씨의 '온라인 연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구모(29)씨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결과, 구씨는 한씨 외에도 20~30대

남성 6명에게 총 5000만원을 뜯어내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 일부 피해자는 돈을 보내려고 대출까지 받았고, 이미저도 안 되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을 사 현금화했다.

구씨는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짜 '인증샷'을 만들었고, 위조한 신분증과 여성 인증 글 등을 보여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는 인터넷과 SNS에 떠도는 여성 사진을 채팅 상대에게 전송해 연애 감정을 유발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퀴'(Romance Scam)'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사기 수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유포 방송작가 등 무더기 덮임

○나영석PD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을 만들어 유포한 방송작가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덮임.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방송작가 이모(30)·프리랜서 작가 정모(29)씨 등 9명은 지난해 10월 14~15일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허위 불륜설을 최초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무직자인 김모(39)씨는 나 PD

등의 관련 기사에 욕설 댓글을 단 혐의.

○경찰조사 결과 불륜설과 관련한 '지라시'는 프리랜서 작가 정씨가 지난해 10월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작성한 버전과 방송작가인 이씨가 다른 방송작가로부터 들은 소문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성한 버전 등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 훼손에 해당할 경우 단순소문과 달리라도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제 노안과 백내장을 동시에 해결하세요

신세계안과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

- 기존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낭 절개를 수기로 진행
-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은 3D OCT 통해 안구 상태 실시간 확인
- 안구 스캔 후 자동으로 3D 알고리즘을 통한 정밀 분석
- 3D 펄스레이저 레이저 시스템으로 정교한 수술 가능
- 3차원 입체절개 방식으로 개개인의 정확한 맞춤 난시교정 가능
- 개별 맞춤형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 삽입으로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시력 가능
- 자동 안구보호 시스템으로 수정체낭 파열, 홍채 손상 등 합병증 방지
- 레이저 최소절개 수술로 다음날부터 돋보기 없이 일상생활 가능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